

'임실N치즈 핫도그' 전주 진출

군, 혁신도시에 1호점 오픈... 도시민에게 판매 활성화·홍보 강화

대한민국 치즈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로 만든 명품 수제 핫도그가 도시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전주 혁신도시에 첫 진출했다.

임실군은 27일 전주 혁신도시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임실N치즈 핫도그' 판매장 1호점 오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오픈식은 심민 군수와 진남근 군의장을 비롯한 임실N치즈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조촐하게 진행됐다.

임실N치즈 핫도그 1호점은 관내 기업으로 수제 소시지 및 핫도그 전문업체인 (주)친한팜과 임실N치즈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사)임실엔치즈를 러스터가 유제품 전문 판매장 계약을 체결하여 주재료인 치즈는 물론 요구르트도 공급받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메뉴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소시지와 치즈를 고객이 직접 골라 주문할 수 있는 10종의 핫도그와 사이드 메뉴, 음료 등이다

모든 핫도그에는 명품 치즈인 임실N치즈와 무항생제 소시지, 신선한 채소들이 들어가 있어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한 끼 식사 대응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정승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문화 트렌드가 건강한 간편 편의식으로 바뀌고 있어 고품질의 임실N치즈와 무항생제 소시지로 만든 핫도그가 바쁜 직장인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이라며 "임실N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임실N치즈 핫도그 판매점 오픈을 계기로 도시민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의 탁월한 맛을 알리는 한편, 판매 활성화와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홍보·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형 판매장 개설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중 전북도청 근처에 치즈 카페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치즈카페를 개설하여 임실N치즈 알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임실N치즈와 유제품, 치즈 소시지 등 홍보영상을 통해 전국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SNS를 통해 임실N치즈 핫도그의 주재료인 임실N치즈 소시지 특판전 '돌쇠 너소평'을 진행,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는 임실N치즈와 친한팜 관계자들에게 축하드리고, 발전을 기원한다"며 "임실N치즈 핫도그 판매장이 도시권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브랜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경식 제15대 남원시 부시장 취임

"시정운영 방향 조화롭게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노력 다할 것"

남원시 제15대 부시장으로 전경식 부시장이 27일자로 취임했다.

전경식 부시장은 코로나와 AI 등 엄청난 시기에 별도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상견례, 민의총 참배, 의회방문 및 부서 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 부시장(1965년생)은 전북 익산 출

신으로, 1990년 공직 초임발령으로 남원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 과장,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전 부시장은 "건강함과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남원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영광과 함



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적한 현안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선7기 이환주 시장이 지향하는 시정운영 방향을 조화롭게 뒷받침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을 살려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된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남원시가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원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8만1,74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 3,200만원을 납부했으며, 지난해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화재 및 농기계사고 사망 사고 등으로 총 6건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스포츠 교통사고 사망·상해 후 유장해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다문화가족·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 대상

순창군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9년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3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은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6,000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하며 여기에 학원이 추가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순창군 관내 학습활동비 지원대상 학원은 2곳이다.

지난해 학원비 지원을 받은 한 학부모는 "이 사업을 통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데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었다"며 "코로나 시대에 저소득층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봉 행정과장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해도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모두 함께 잘 사는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식통

순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서비스 확대

순창군이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부터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부적합품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10억원 규모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사업이 선정, 장비구축과 분석실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분석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농산물 유통의 사전예방관리, 재배환경관리, 정책지원관리, 교육 및 홍보강화 등 각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농산물 안전 분석과 컨설팅 업무를 강화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을 위한 안전성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군의회, 임사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사회를 열고, 2월 4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신축년을 맞아 의사 운영의 첫 시작을 알린 이번 임사회에서는 올 한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군정 운영의 새해 밑그림을 그리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남근 의장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어려웠던 2020년을 지나고 맞이한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밝고 따스한 광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 금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와 추진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동체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남원시와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택트(Untact), 비대면 방식으로 이웃 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공동체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맞춤형 과정으로,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2~5시까지 3시간씩 2주간 총4회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15명으로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남원시민은 누구나 신

청가능하고 모집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620-5644)로 친절한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본 과정에서는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미지 명함제작하기, 1인 1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내 아이템 활용을 이용하여 블로그에 글쓰기, 블로그 및 밴드에 영상업로드 및 감상평 작성하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비대면 방식의 소통에 관심있는 남원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